

중국(상하이) 진출 소비재·콘텐츠 기업 간담회 개최

- 정상 상하이 방문(1.6.~7.) 연계,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
- 한·중 교역 확대를 위한 소비재·콘텐츠 중심 新시장 진출 방안 논의

산업통상부(이하 산업부) 김정관 장관은 1. 6(화) ~ 7(수) 이재명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과 연계하여, 1. 7(수)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중국 진출 소비재·콘텐츠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에는 엔터, 영화, 게임, 헬스케어, 식품, 뷰티 등 소비재·콘텐츠 대표 기업 14社 및 지원기관 3社가 참여*하여, 우리 기업의 주요 현안·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

* **(진출기업)** SM엔터, CJ CGV, 위메이드, 이랜드, 한국인삼공사, 디오, 농심, 샘표식품, 대상, 이마트, 코스맥스, 코스메카,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등
(유관기관) KOTRA, 한국무역보험공사, KTR

한·중 간의 교역은 2021년 3,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, 최근 양국의 교역 수준은 정체*된 상황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. 이에, 산업부는 기존 자본재·중간재 중심의 교역에 더해, 글로벌적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소비재·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對중국 교역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교역규모^(억불): ('21) 3,015 → ('22) 3,104 → ('23) 2,677 → ('24) 2,729 → ('25.11) 2,461

동 포럼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진출하고,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등 경쟁이 치열하나, 한국 소비재 및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,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. 다만, 이를 위해 ▲한·중 기업 간 교류 확대 지원, ▲한·중 규제·인증 관련 협력 확대, ▲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정부측에 요청하였다.

김 장관은 “중국 시장 돌파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으며,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”고 강조하는 한편, “유관기관·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, 서비스 산업 제도 기반 조성과 함께, 한·중 간 중앙·지방 소통 채널을 활용한 기업 애로 해소를 모색하는 등 기업의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·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	책임자	과 장	김덕구 (044-203-5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섭 (044-203-5677)



1. 행사 개요

- 목 적 : 상하이 진출 소비재·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중국 新시장 진출 확대 방안 모색
- 주 제 :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논의
- 일 시 : 1. 7(수) 09:30 ~ 11:30
- 장 소 :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 3F 행정회의장
- 참 석 : 20명 내외
 - (산업부) 산업통상부 장관, 통상협력국장, 동북아통상과장 등
 - (진출기업)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 진출기업 14社
 - * SM엔터, CJ CGV, 위메이드, 이랜드, 한국인삼공사, 디오, 농심, 샘표식품, 대상, 이마트, 코스맥스, 코스메카,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등
 - (유관기관) KOTRA, 한국무역보험공사, KTR

2. 세부 일정

시 간		내 용	비 고
09:30~09:35	(5')	모두 발언	산업부
09:35~10:55	(80')	기업 건의사항	진출기업
10:55~11:25	(30')	토론 (우리기업 지원 방안 포함)	참가자 전원
11:25~11:30	(5')	마무리 발언	산업부